

제119회

1월 8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19회, 발명 교실이 ...○
- ... 지난 1월 8일 발명장 ...○
- ...서관 연구실에서 개 ...○
- ...최 되었다. 매월 돌 ...○
- ...째 토요일 오후 1시 ...○
- ...30분에 개최되는 발 ...○
- ...명교실은 이 달에도 ...○
- ...1백여명이 참석하여 ...○
- ...성황을 이루었다. ...○
- ...이날 발명교실에서 ...○
- ...는 코우드전자(주) ...○



원적외선 한방 쑥찜기

코우드전자 정중석 사장

나는 선친때 부터 설립을 계획해 왔던 발명재단과 발명 중·고·대학교 그리고 첨단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땀흘린 사람이 직접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씨를 뿌리고 가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 바로 2대 3대를 통해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하는 장인정신의 위대함이 살아 있을때만 가능한 경우이다.

정중석 사장이 결실을 맺을수 있었던 이유는 정사장의 선친께서 그를 위해 씨앗을 뿌려 놓았던 결과였다. 정사장의 선친께서는 지금부터 약 23년전 피부병을 심하게 앓았는데 모병원에서 석달 가량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의 선친께서는 발명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던터라 입원을 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힘없는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던중에 길가에서 마도로스 파이프에 담배대신 쑥을 넣어 쑥연기를

찌게할 수 있는 기구를 판매하는걸 보고는 그 기구를 사다가 치료를 한 결과 7일만에 피부병이 깨끗이 치유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쑥찜기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정사장의 선친은 쑥찜기를 사용하다보니 연기가 많이나고 냄새가 고약해 본인뿐만 아니라 옆집에까지 피해를 주는 바람에 쑥찜기에 관한 연구보다는 쑥뜸이 왜 좋은지 그 원인부터 밝히기로 마음먹고 관련 한방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여 한의사 못지않은 실력을 쌓았다.

정사장이 여기서 한가지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대표인 정중석 사장 …○
- … 의 성공사례발표와 …○
- … 본회 김관형 상근이 …○
- … 사의 「발명의 발상기 …○
- … 법과 사업」에 대한 …○
- … 강의와 토론으로 94 …○
- … 년도 발명교실이 첫 …○
- … 출발을 하였다. 발명 …○
- … 가의 성공사례를 간 …○
- … 추려 소개한다. …○
- … <이두성 記> …○



느낀 것은 발명인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여 학위는 없을망정 박사 이상이 되도록 열심히 찾고 탐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쑥의 엑기스가 인체의 경혈을 타고 들어가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도움으로써 병을 치유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쑥의 엑기스만을 빼낼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임상실험을 한 결과 너무도 훌륭한 결실을 거두었다.

곧바로 특허청에 가서 무연 쑥찜기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여기서부터 쑥찜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사장은 아버님이 이룩해 놓은 발에 더욱 많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 시작하여 전기쑥찜기에 이어 전자 쑥찜기 뿐만 아니라 현재의 원적외선 쑥찜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아버님의 노력이 2대에

걸쳐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그는 93년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에도 출품하여 상공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어떤사람은 그가 특허를 23개씩이나 등록 받은 것을 알고 발명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까지 하였지만 그 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더 많았다.

정사장은 발명인도 건강해야 발명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발명한 물건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건강에 관한 제품들이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듯이 건강해야 발명도 우수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란단다.

정사장은 선친때부터 설립을 계획해 왔던 발명재단과 발명중·고·대학교 그리고 첨단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

옛날에는 연극인이나 예술인들이 광대나 천민이니 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대의 경제는 발명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인이 많은 나라가 곧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누구 보다는 잘 알고 있는 정사장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가 아니면 탐내지 마라」는 것이 그의 발명에 대한 지론이다.

정사장의 선친께서 일궈 놓은 발명의 밭에서 열매를 수확해 가고 있는 정사장은 이 시대의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진정한 발명인임을 새삼 느낀다.

울한해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둬서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발명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